



KOGA(회장:안창섭)는 지난 2월 28일 서부 자바 노동청장 Pak.Taufik 과 침체되어있는 봉제기업의 현안에 대한 면담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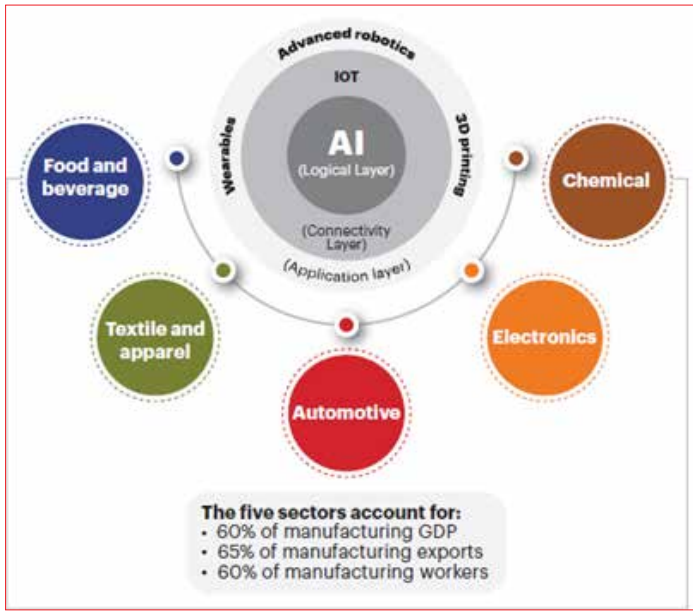
# 한국봉제협회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 Vol. 64



# 인니,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을 통한 제조업 강국의 꿈



▲Making Indonesia 4.0

인도네시아는 제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실현을 위한 로드맵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Making Indonesia 4.0) 진행하면서, 한국 등 제조업 선진국을 통한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은 지난 2018년 4월 조코위 정부가 처음 공개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흥국들도 글로벌 생산기지로 자리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정책에 기반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현재 세계 16위 경제 규모를 2030년까지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핵심 전략 방안으로 첫째, 제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순수출의 GDP 기여도를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순수출 중 제조업의 기



▲출처: 인도네시아 산업부

여도를 2016년 30%에서 2030년에는 65%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게 목표다. 둘째, 로봇틱스(Robotics),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인더스트리 4.0 기술을 접목해 단위비용당 노동 생산성을 2030년까지 2016년의 2배로 높이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인더스트리 4.0 육성과 달리 로봇틱스·바이오 등 미래산업보다는 전통 제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인도네시아는 2억8천만 인구를 보유한 세계 4위의 인구대국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젊은 인력이 풍부한 생산기지가 소비시장이며, 자원이 풍부한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부족 등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전방과 후방산업 연계 가치사슬 취약하고 정부 재원 및 혁신 주도 역량 부족, 숙련 노동력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러한 선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선결 과제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와 부품의 국내 대체를 위한 산업생태계를 육성 △5대 육성산업(식음료, 섬유, 자동차, 전자, 화학)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산업단지 간 연결성 강화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 △빨라빠링(Palapa Ring)을 통해 대규모 통신망 인프라 구축 △Gojek, Tokopedia, Traveloka 등 자국 유니콘 스타트업들의 성공을 발판삼아 제조업에도 'IT 혁신' △한국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선도 제조업체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취약한 3차 산업 기술을 건너뛰고 4차 산업 기술로 직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디 이스라 마흐유딘 반둥공대(ITB) 교수는 지난 2022년 10월 13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인도네시아 산업부 공동 주최로 인도네시아 디지털 산업 센터(PDI 4.0)에서 열린 '한국·인도네시아 스마트 팩토리 협력 촉진을 위한 세미나' 에서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은 아직도 막대한 노동력을 통한 2차 산업 기술 시대에 머물러 있다" 라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은 의류와 섬유, 신발, 목재, 가구 등 노동 집약적 산업에 강점이 있지만 생산 방식은 사람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마흐유딘 교수는 "인도네시아

가 제조업 강국의 꿈을 이루려면 자동화를 통한 대량생산 체제인 3차산업 기술을 건너뛰고 바로 4차산업 기술로 직행해야 한다" 라며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해답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특히 인도네시아의 노동 집약적 제조업에 가장 적합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마흐유딘 교수는 "노동 집약 산업에 스마트 팩토리의 정보 관리 분야를 접목하는 것은 일

자리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인도네시아 산업에 적합한 형태" 라며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관리 기술이 인도네시아에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최근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의 5대 육성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늘어나는 등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롯데케미칼 등 대규모 투자를 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 KOGA 서부자바 노동청장과 현안관련 면담가져



KOGA(회장:안창섭)는 지난 2월 28일 서부 자바 노동청장 Pak.Taufik과 침체되어있는 봉제기업의 현안에 대한 면담이 있었다. 이번 면담에는 KOGA 안창섭 회장과 관리팀장 Firman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현안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 함께 논의했다.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의 고임금에 대한 부담이 큰

봉제산업에 대한 현 상황을 상호 인식하고 바이어나 Audit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KOGA는 회원사의 어려움과 자금의 불황 타개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열정과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재인니 한국봉제협회의 성장에 거름이 될 것으로 본다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31년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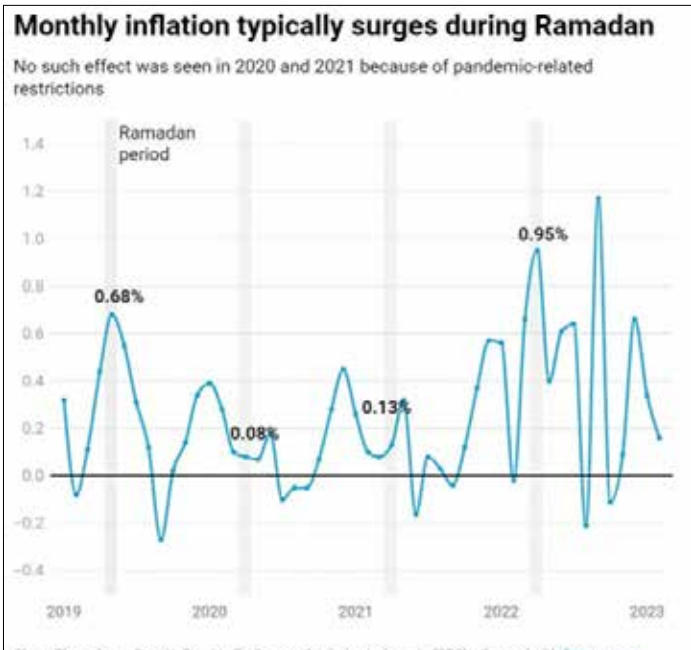
T. +62 21 440 3926  
F. +62 21 440 3944

sales@dongjung.net  
bhjangjkt@gmail.com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http://www.dongjung.net)

## 2월 인플레이션 5.47%로 상승, 라마단 기간 중 주의 경고



2월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일부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폭우와 다가오는 라마단 시즌은 소비자 물가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라

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다만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간 물가상승률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 전망치 범위에 머물고 있으며, 월별로는 실제로 물가상승률이 소폭 완화됐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은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5.47% 상승해 1월(5.28%)보다 빠르게 상승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월별 물가상승률은 전월의 0.34%에서 2월에는 0.16%로 낮아졌다. 앞서 금융 조사 기관인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인플레이션이 5%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통계청은 2월 소비자물가의 연간 상승이 운송비 상승에 의한 것으로 연간 13.59%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주로 작년 9월의 연료비 인상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지난달 식품, 음료, 담배 부분의 가격은 2022년 2월보다 7.23% 올랐다. 1월 1일부터 시작된 담배 소비세의 10% 인상과 마찬가지로 항공요금 인상은 교통 부문을, 쌀 가격 인상은 음식, 음료, 담배 부

를 각각 끌어올렸다. 지난달과 비슷하게 깔리만탄의 꼬파바루 시는 7.8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연간 물가상승률을 기록했고 반둥 시는 7.5%로 자바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만다리 은행의 이코노미스트 파이살 라흐만에 따르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증가는 2022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월간 하락을 기록했던 것처럼 거저효과 때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반면 월간 인플레이션은 부분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식품 부문의 압력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계청은 대부분 지역에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이달 농업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은행 금리정책의 실질적인 근거가 된 근원 물가상승률은 1월 3.27%에서 2월 3.09%로 낮

아졌다. 이 수준이라면 중앙은행의 올해 상반기 목표 범위 상한선으로 정한 3.6%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파이살은 1일 근원 물가상승률의 둔화는 금 가격 하락, 미국 달러 대비 루피아 환율 상승, 2차 파동 충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했다는 사실 등 여러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은행은 특히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연료가격 인상에 따른 거저효과를 감안할 때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 성장률은 최대 3.5%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중앙은행은 지난 6개월간 연속 금리인상 이후 기준금리를 5.75%로 유지했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페리 와르지오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을 추가 인상이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통계청에서 통계 서비스 및 유통을 담당하는 삿지 이스마티니(Pudji Ismartini) 과장은 올해 3월 말에 시작되는 라마단 기간 동안 전형적인 계절적 소비자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앞으로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라마단 기간 동안 월간 물가상승률이 0.68%, 지난해 라마단 기간에는 0.95% 상승했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활동에 광범위한 제한을 가했던 2020년과 2021년에는 이러한 급증이 없었다. 또 다른 경고는 최근 상승하고 있는 쌀 가격과 관련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유통업체들의 쌀 평균 가격은 kg당 1만 2,699루피아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41% 올랐다. 2월의 쌀 농가 공급 가격은 전월 대비 0.99% 하락했다. 만다리 은행의 파이살은 라마단과 이돌 피트리 휴일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3~4월을 제외하고 연간 인플레이션은 앞으로도 계속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인니 정부, 수출업체 수익금 30% 국내 예치 정책 예정대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3월에 도입될 일련의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수출 기업의 수익의 최소 30%를 국내로 들여오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1일자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도 경제조정장관은 2월 28일, 재무부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30%의 수치는 달성 가능하며 루피아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업체가 국내에서 수익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 25만 달러 상당의 수익금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르랑가는 이날 CNBC 인도네시아가 주최한 '2023 경제전망' 행사에서 정부가 입수한 자

료에 따르면 30%는 국내에 보유해야 하며, 3개월의 과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벌어들인 많은 수출 수익이 해외, 특히 싱가포르와 같은 외국 은행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작년에 기록적인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다른 신흥 시장의 통화화 함께 루피아화가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시기에 루피아화를 지지했다. 인도네시아는 1월에도 여전히 수출이 수입을 웃돌았지만,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다시 내려가면서 루피아화가 약세를 보여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북부자카르타 판중브리옥 자카르타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yya)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천연자원과 그 파생 상품의 선적으로 얻은 수출 수익에 관한 정부 규정 제1/2019호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 그 규정은 외환 영수증을 수출 수익이 본국으로 송금된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부적절하며, 새로운 규칙은 제조 부문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출업체들이 수익을 국

내에 저장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 또한 중앙은행은 특히 기업들이 더 많은 금액을 인도네시아 은행에 장기 예치할 의향이 있는 경우 이러한 자금에 대해 "경쟁적 금리"를 약속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은행들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일정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민간 은행인 브르마타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인 조수아 빠데데는 2월 16일, 국내 제3자 외화 자금의 제한된 양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통화가 부분적으로 약세를 보였다고 정부에 이 계획을 지지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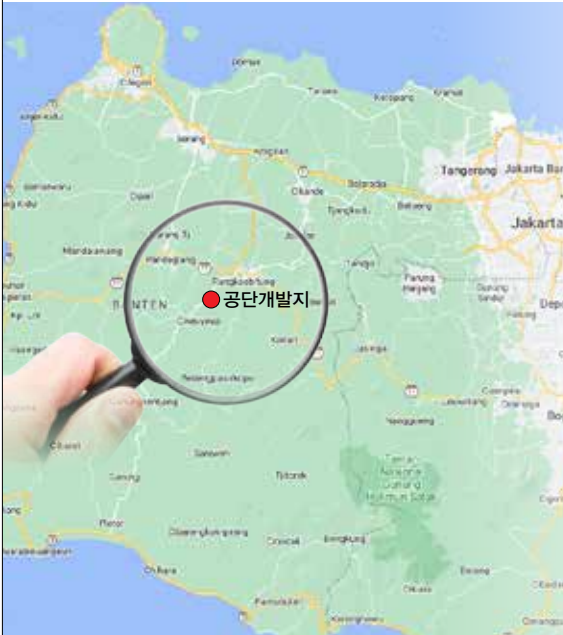
내에 저장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 또한 중앙은행은 특히 기업들이 더 많은 금액을 인도네시아 은행에 장기 예치할 의향이 있는 경우 이러한 자금에 대해 "경쟁적 금리"를 약속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은행들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일정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민간 은행인 브르마타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인 조수아 빠데데는 2월 16일, 국내 제3자 외화 자금의 제한된 양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통화가 부분적으로 약세를 보였다고 정부에 이 계획을 지지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Kawasan Industri Rangka Bitung by PT. Muns Cipta Bangun

### 최적의 산업단지 분양!

# 왜 멀리서 찾지?



우리가 몰랐던 이곳! ... 공항, 항만과 땅그랑 도심 가까이 저렴한 인건비, 노동인력 풍부한 지역으로 100hr 규모로 조성합니다!

1. 위치 : Rangkas Bitung, Lebak, Banten
2. 면적 : 100 hr (1,000,000 M2)
3. 공단개발지 산업용지로 지정 완료.
4. Serang-Panimbang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이 용이함. Tol Gate에서 10분거리.
5. Kabupaten Lebak 인구수 : 2020년 조사기준 약 138만명
6. 최저임금 : 2023년 기준 Rp 2,944,665 으로 BANTEN주내 최저이며, 인구가 많아 노동집약적 산업에 적합함.
7. 분양가 : Rp 800,000/M<sup>2</sup>
  - 7.1 부가세, 취득세, 이전비용 별도
  - 7.2 공단내 도로, 배수로 및 부지평탄작업등 기본토목공사 완료기준.
8. 시행 및 시공사 : PT. Muns Cipta Bangun

출발지	거리	소요시간
Gerbang Tol Tangerang	85 Km	1H 10M
Air Port (CGK)	103 Km	1H 30M
SCBD Jakarta	108 Km	1H 40M
Tanjung Priok Port	121 Km	2H 30M

문의처 : 081190097773 (whatsapp)  
kakaotalk ID : muns.id  
Email : munsclub@muns.id

Grand Serpong Mall (Great Western Resort) Lt. UG No. 6,  
Jl. MH. Thamrin KM. 2.7, Kebon Nanas, Kel. Panunggangan Utara,  
Kec. Pinang, Kot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143  
Tlp. 021-5541747 | E-mail. munsclub@muns.id, munsclub33@gmail.com  
[www.muns.id](http://www.muns.id)

# 재외동포청 설립법 국회 통과...동포사회 숙원 '눈앞'

6월초 설립 예정...재외동포재단 사업 승계, 지자체 유치 경쟁 외교적 마찰 고려, 일부 사업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관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다.



▲재외동포재단 사업 신설 동포청이 승계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신설되는 동포청이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272명 중에 찬성 266명으로 외교부 산하에 동포청이 신설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식으로 공포되면 3개월 안에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동포청을 신설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초에는 동포청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 동포청 설립은 동포사회의 숙원이었다. 전 세계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은 그동안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권익 신장을 위한 정부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모국 정부에 줄기찬 건의를 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 조직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초에 내놓았고, 여야가 합의해 이번에 결실을 거두

었다. **150~200명 규모, 지자체 유치 경쟁** 신설되는 동포청의 인력은 대략 150~2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신설되는 동포청의 인력 규모를 최소 150에서 최대 200명으로 편제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청급 정부 기관의 인력이 최소 200여 명인 상황에서 '작은 정부' 지향을 위해 그 이상으로 조직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동포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동포청 신설로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포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은 동포청에서 승계해서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동포청이 어느 지역에 들어서게 될지도 동포사회의 큰 관심사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은 2018년 7월에 제주도로 이전했다. 당시 동포사회 단체장들은 재단 방문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한 번 더 가야타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으며 제주 이전을 반대했었다. 그렇기에 동포청은 재외동포의 방문이 용이한 지역에 들어서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모국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는 재외동포청의 수도권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기도 했다. 현재 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광주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천은 관내에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입출국 시 편리한 점을 장점으로 부각하고 있으며, 광주는 국내 고려인 최대 집거지인 고려인마을이 자리한 점 등이 주민 포용에서 앞서고 있는 것을 강조한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중국 동포 등 외국인 비중이 높은 경기도 안산시가 유일하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유치전에 나설 것이라던 대전과 세종시는 사실무근이라며 다른 정부 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동포재단이 폐지되는 제주에는 반대급부로 다른 기관의 이전을 검토 중이다.

**산하기구로 재외동포협력센터 마련**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설립된 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기구인 재단법인으로 1997년 출범했다. 당시 정부 직속기구가 되지 못했던 것은 외교부에서 정부가 직접 재외동포를 지원할 경우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러시아 등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동포청이 정부 조직으로 출범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해 산하기구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둔다는 방침이다. 동포재단이 펼쳐온 사업의 상당 부분을 이 조직으로 이관하게 된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재단법'처럼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0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이를 근거로 설립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외교부 장관은 재외동포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외동포정책 추진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3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지만 법안이 부결되거나 통과가 지연될 경우 외교부 장관령으로 산하기구가 아닌 소속기관으로 센터를 두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 이 경우 동포청 소속이 되므로 '작은정부' 지향과 맞지 않게 될 수 있다. 동포재단은 경기도 시흥시 서울

대캠퍼스에 부지를 마련하고 설계에 들어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가 '재외동포협력센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포재단 사업은 승계, 고용유지 100%는 어려울 듯**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동포재단의 사업은 전부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명시가 없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일부 부처에서 동포청으로 파견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경력으로 인력을 선발할 방침이다. 경력경쟁은 최소 3년 이상 근무가 기본이다. 이럴 경우 현재 78명인 동포재단 인력 중에 20%가 경력 3년이 안 되는 직원들이라서 지원조차 못 할 수 있다. 또 경력경쟁 채용이 최대 5급인 사무관까지를 뽑기 때문에 재단의 일부 부장급 직원의 경우 직급이나 연봉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동포재단 직원 중에 몇 명을 동포청 직원으로 선발할 것인지 또 산하기구로 만드는 '재외동포협력센터'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할지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는 상황이라서 동포재단 내부에서는 신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포청 인력을 시민사회·학계 등에서 선발할 수 있고 개방형 직제도 둘 수 있으므로 동포재단의 고용을 100%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mailto:ys.para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http://www.paranint.com)  
박용상 : 0815 1902 4176

# 인니 중앙은행장, 식품물가 급등에 “상반기 물가 5%대 전망”

식품가격 상승세... 라마단 · 르바란 거치며 5%대 물가상승률 이어질 듯 “중국 소비 늘고 수출 호조 이어지면 올해 5.1% 성장 가능”



▲인도네시아 전통시장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주 메단에 있는 전통 시장에서 한 상인이 손님에게 식료를 팔고 있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7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올해 상반기까지 5%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5일(현지시간) CNBC인도네시아에 따르면 페리 와르지요 BI 총재는 이날 남술라웨시 마카사르에서 열린 물가 안정 캠페인 행사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5%대 물가상승률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야 BI의 목표치(연 2~4%)인 4% 아래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페리 총재는 “아직 고물가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라며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지역 당국과 중앙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물가

가 치솟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6개월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그 결과 기준 금리로 활용되는 7일물 역환매채권(RRP) 금리는 3.5%에서 5.75%로 올랐다. 이 덕분에 6%에 육박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5.28%까지 내려왔고, BI도 지난달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7%를 기록하며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쌀과 식용유 등 핵심 식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 문제는 이달 말부터 이슬람 단식 월인 라마단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식품 가격은 더 오를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통상 라마단



김재훈의 세무상식

## 인브렙(inbrenng)의 지분 참여에 대한 세금

일자리 창출법에는 조세규정도 포함되는데 111조, 112조, 113조, 114조로 4개의 조항을 두고 있다. 111조는 소득세법, 112조는 부가세 및 특소세, 113조는 국세기본법, 114조는 지방세를 규정하고 있다. 부가세 관련된 규정중 inbrenng 형태의 지분 참여 조항을 두고 있다. Inbrenng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주식회사의 자본 유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법 UU No.40/2007에서 주식회사의 자본구조는 수권자본, 발행자본 및 납입자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권자본은 정관에 언급된 회사 주식의 전체 액만가로서 해당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수를 의미한다. 한편 발행자본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수를 의미한다. 납입자본은 완전히 납입한 주식을 의미한다. 주식회사법 제 34조 1항에

따라 자본금 납입은 현금 및/또는 기타 형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현금 이외의 다른 형태의 자본 예치금을 inbrenng 이라 한다. 금전 이외의 형태로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라 결정된 공정가치 또는 해당주식회사와 관련이 없는 전문가에 의해 결정된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출자금의 평가액을 결정한다. 자본금 납입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지만 토지 및 건물을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자는 PPh4(2)로 2.5%의 소득세를 양도받아야 한다. 또한 inbrenng 관련한 과세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법 제 112조 pasal 1A ayat 2 huruf d에서 주식 대신 자본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과세 상품(BKP)을 양도하는 것은 대상이 되는 양도로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 및 양도를 받는 당사자가 부가세 과세사업자(PKP)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김재훈 대표

로 규정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inbrenng 은 비현금 형태의 자본 유입 또는 이전을 의미한다. Inbrenng은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자동차, 기계와 같은 자산 형태의 지분 참여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제자문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e-mail: kimjhoon@bngconsulting.co.kr

시작부터 라마단 종료 후 이를 축하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 ‘르바란’ 까지 식품 가격이 오른다. 여기에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도네시아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식량 생산량도 감소할 것이라 예상이 나오고 있어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BI가 지난달 금리를 동결했지

만, 연내 1~2회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페리 총재는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BI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을 4.5~5.3% 사이로 전망하면서 중간값인 4.9%를 성장 전망치로 보고 있다.

하지만 페리 총재는 인도와 중국의 소비가 다시 늘어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진다면 올해 인도네시아가 전망치보다 더 성장할 수 있다며 “우리의 추정치는 4.9% 성장이지만 나는 5.1%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PT. TOP ABADI

### All in one packaging service with best price

20년 동안 인도네시아내 최고의 품질과 정확한 납품기일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최저가격으로 고객사에 도움을 드립니다.

**카톤박스**

**단플라박스**

**대차 및 랙**

**플라스틱제품류**

**종이제품류 속대지, 종이각대, 종이튜브 등등**

- 카톤박스 (미니, 대형 사이즈 가능)
- 단플라 박스
- 커스텀 제작 대차 및 랙
- 원단 릴리스 거치대 및 봉제 테이블
- 팔레트(철재, 플라스틱, 종이)
- 인쇄박스 및 내부속대지

**모든 아이템 고객사 요청 사항에 맞춰 제작 가능합니다.**

Bekasi Int'l Industri Estate (BIIE)  
Kawasan Industri Hyundai Blok C2 No.1A, Ds. Sukaresmi, Cikarang Selatan Bekasi, Jawa Barat Indonesia 17550  
마케팅 팀장 홍의준 0811 1129 038    마케팅 담당 Ibu Ratna 0878 7720 8572    Email : top\_abadi@yahoo.co.id, rielwooha@gmail.com

# 인니 부패감시단체 “드러난 세무공무원 부패는 빙산의 일각”



▲아들 폭행 사건 여파로 거대한 재산 규모가 드러난 세무공무원 라파엘 알룬 트리삼보도(가운데)가 3월 1일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를 받고 부패적결위원회를 건물 외를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휩싸였다. (사진=곰빠스닷컴/Kristianto Pumomo)

부정부패 감시단체인 인도네시아 코럽션 워치(Indonesia Corruption Watch 이하 ICW)는 최근 재산 형성 과정이 불분명한 세무공무원 스캔들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국민 경각심을 고취시켰다고 5일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했다.

ICW는 정부가 관리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부를 축적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들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공무원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새삼 커진 것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한 아들이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세무서 총무부장 라파엘 알룬 트리삼보도(Rafael Alun Trisambodo)가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큰 부를 이루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서부터다.

지난 1일(수) 라파엘은 부패적결위원회(KPK)에 출두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KPK 측은 그의 재산 규모가 3급 공무원(echelon III)의 전형적인 프로필에 비해 과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2021년 12월 모든 고위공무원들이 KPK에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라파엘은 560억 루피아(약46억6,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이 신고한 재산규모 580억 루피아(약 48억3,000만 원)에 필적하며 1급 공무원(echelon I)인 수리요 우토모(Suryo Utomo) 국세청장의 재산 140억 루피아(약 11억6,600만 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스리 재무장관은 라파엘을 현직에서 해임했지만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는 그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라파엘이 공무원 신분으로 공직자 윤리 규정과 관련법에 따라 조사 받고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조치한 것이다. ICW는 재무부가 라파엘을 즉시 해임한 것에 대해 확고하고 진보적인 조치였다고 환영하면서도 해당 사건이 공무원 청렴성 위반에 대한 예방 시스템 및 조기경보 메커니즘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ICW는 1,000억 루피아(약 83억 2,700만 원)규모의 부정 축재를 한 전 세무공무원 가유스 팜부난(Gayus Tambunan) 스캔들과 KPK가 세금 횡령액 570억 루피아(약 47억4,600만 원)를 압수한 또 다른 세무공무원 앙인 뿌라이트노(Angin Prayitno) 사건을 언급하면서 세무공무원이 불분명한 출처의 돈으로 거대한 재산을 불린 사건이 줄곧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늘 졸속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요식행위로 받아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 기재된 내용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수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하면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검증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가동하여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무거래보고분석센터(PPATK)는 2012년부터 라파엘의 경우를 포함해 여러 건의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을 발견하고서도 당

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해당 거래의 즉각적 동결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ICW는 어떤 공무원이 단기간 내에 갑자기 재산을 불렀는데 그 형성 과정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그것이 부정부패를 포함한 금융 범죄의 결과물일 수 있음을 전제하여 정부 당국이 공직자의 부당한 축재(蓄財)를 범죄로 인식하고 관련 조치를 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정부 당국의 느슨한 인식이 결과적으로 공직자 부정부패를 방치하다가 크게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건들만 뒷북을 치며 수사하여 처벌해온 관행을 지적한 것이다.

당국은 라파엘에 그치지 않고 소셜미디어에 고가의 호화 바이크를 과시한 족자 장관 에코 다르만토(Eko Darmanto)의 재

산 형성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SNS 포스팅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KPK는 에고를 7일(화) 소환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에고 본인도 해당 KPK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 세관청 대변인 니르말라 드위 헤르만토(Nirmala Dwi Heryanto)는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재무부가 에고를 2일(목) 즉시 해임했으나 라파엘의 경우와 같이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3일(금)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일(수) 재무부 검찰국장 아완 누르마완 누(Awan Nurmawan Nuh)는 2019년과 2020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을 토대로 재산 형성 과정이 불분명한 최소 69명의 재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조만간 차례로 불러 관련 소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러, 인도·인니 등 6개국 비자완화 추진... 우크라전 편들기 대가?

러시아가 인도·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한 6개국과 비자 제도 간소화 협정을 마련 중이라고 예브게니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6일 밝혔다. 이바노프 차관은 이날 자국 타스 통신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비자 제도 간소화를 규정하는 정부 간 협정안이 인도뿐 아니라 앙골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시리아, 필리핀 등과도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대상은 주로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중국·인도·이란·북한 등 19개국을 대상으로 관광 목적의 입국 비자 발급을 간소화해주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들 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러시아 방문을 희망할 경우 호텔 등의 숙소 예약 확인서만 제출하면 최대 6개월짜리 관광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한 것이다. 관광 비자 간소화 대상국 목록에는 튀르키예(터키)·미얀마·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세르비아 등 역시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와 서방 간 대치 국면에서 러시아가 자국 편에 서거나 최소한 중립적 입장을 취한 국가들에 ‘보은’ 하는 차원에서 비자 제도를 간소화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

후 러시아는 우호국인 중국·인도·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애써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이 러시아의 침공 전쟁을 비난하면서 강력한 대러 제재를 가했지만, 중국과 인도 등 친러 성향 국가들은 이 같은 조치에 동참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비동맹 중립 외교 노선을 걸은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자국에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서방이 외면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행사에 초청하는 등 러시아에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 파인트리 재봉사




친환경 수성본드사 한국 특허획득 (NO:10-2009-0099067)  
Pine tree 본드재봉사는 봉제시 풀림을 방지하며 직물과의 마찰계수를 감소시켜 원단의 Damage를 줄임으로 고속 stitching시 가장 이상적인 재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PT.ELBEKA S.T는 재봉사 전문 생산업체로 원사구매에서 연사, 염색, 검사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최고품질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ELBEKA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축적된 노하우, 우수한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명	스펙	사용용도
나이론 본드재봉사 (Nylon Filament Bonded Thread)	100D/2,3 . 210 D/2,3 280 D/3 . 420 D/1,2 840 D/3,4	신발, 가방, 장갑 (골프, 야구, 오토바이용 등)
나이론 본드 발수재봉사 (Nylon Water Proof Bonded Thread)		
모카신 재봉사 (Braid Thread)	0,8mm, 1mm, 1,2mm, 1,5mm	신발 (운동화 및 캐주얼화)
폴리에스테르 코어사 (Polyester Core Sewing Thread)	29S/2, 29S/3, 45S/2, 15S/2	수영복, 장갑, 자켓
나이론 스트레치 재봉사 (Nylon Stretch Sewing Thread)	70 D/2, 100 D/2	수영복, 니트, 자켓 등 의류용 침대, 쇼파, 장갑
스판 폴리 재봉사, 발수 재봉사 (Spun Polyester Sewing Thread)	60S/2, 60S/3, 40S/2, 40S/3 30S/3, 20S/3, 20S/4	
폴리에스테르 스트레치 재봉사 (Polyester Stretch Sewing Thread)	75 D/1, 150 D/1,2,3 200 D/1, 300 D/2	장갑, 의류, 침대, 쇼파용
재전사 및 도전사 (Anti-Static, Conductivity Sewing Thread)		
방염, 난연 재봉사 (Anti Flammable Sewing Thread)		안전화 및 등산화
야광 재봉사 및 야광 자수사 (Luminous Thread)		

**PT ELBEKA SEWING THREAD**  
Jl. Industri Keroncong No. 20 RT 004/RW 04,  
Kel. Keroncong Kec. Jatiuwung, Kota Tangerang Indonesia

Telp : (021)5931-0445,0447 Fax : (021)5931-0446 E-mail : elbekast@gmail.com  
한국인 연락처 HP : 0812-8888-0899 (이봉규 사장), 0811-1830-046 (Aan Suhanah)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 그대 어이かり

내가 안 할 걱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영화 시사회를 한다기에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았다. '그대 어이かり'라는 영화인데 사전 정보 없이 보다가 서서히 이젠 내 인생인데 싶다. 누가 피해가겠는가? 한 때 건배사로 인기였던 '9988234'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을 앓고 죽자는 염원이었다. 고통 없이 살다 가는 죽음의 복을 소망하는 것이다. 큰 복이겠다. 노연희씨는 건망증이 있다. 아니 치매 초기다. 노망이라고도 했고 알츠하이머라고도 하는 모양인데 정확히는 나도 잘 모른다. 다만 제정신으로 살고 싶다. 딸을 결혼시킨 뒤 부부가 조용한 시골에 와서 지내려고 한다. 이들 부부는 한 때, 어린 아들을 앓고 힘들어했지만 그런대로 잘 참고 살아왔다. 재능이 있는 남편이 바깥 생활을 접고 시골에서 아내와 함께 지내하고자 하는 것은 아내의 건강이 걱정돼서다. 여기까지는 참 보기 좋다. 누구나 안 좋은 일은 빨리 잊어버리라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다. 반면에 무엇인가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도 잘 안 된

다. 새로운 것을 익히고 숙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대충 듣고 넘기는 버릇 때문에 기억하는 기능이 퇴화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누구나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거나 관심 있는 것만 기억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다고 기억이 망가질까? 나는 자녀들에게 말했다. 살만큼 산 나이가 되면 아플 때 연명치료는 않겠다고, 병원 말고 집에서 조용히 쉬다 가겠다고 했다. 자녀들에게 간병의 부담은 주고 싶지 않으니 시간제라도 요양보호사나 간병사를 둘 형편은 되면 좋겠다. 제 발로 화장실 가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많이 들어 알고 있다. 그러니 몸을 아끼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도 운동이지 싶다. 이른 생각 인지는 모르겠으나 웰 비잉 못 지않게 웰 다잉을 생각한다. 죽음이란 맛따쁘리고 싶지 않은 불편한 사실이다. 밥을 먹고 살면 다른 욕심은 말고 건강하게 살다 가고 싶다. 주인공 연희씨는 기억이 이상하다는 것을 안다. 킁킁깜빡 한다는 것을 알고 메모 같은 일기를 적는다. 불편한 진실을 알고 존

엄하게 죽는 것을 원한다. 당신이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어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 불안한 일이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안락사를 시켜 달라지만 가족들은 쓸데없는 말 말라고, 말도 안 된다고 펄쩍뛴다. 그러나 현실은 고통이다. 벽에 0칠을 할 때 까지 살라고 하지만 당해보면 못할 일이다. 건강은 점점 더 나빠져 간다.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요양병원에 보냈다가 퇴짜를 맞은 연희씨는 중증이다. 끝까지 아내를 집에서 돌보겠다는 남편도 지쳐 간다. 거들어 줄 딸은 결혼을 했고 임신을 했다. 왜 금세 먹고 또 먹으려 할까? 냄새나는 빨래와 목욕은 감당한다고 해도 불을 내거나 가축을 하는 것은 힘들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서 서로 손을 묶고 잔다. 죽일 수는 없으니 죽여주기를 바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수면제를 먹어서 계속 재워야 할까? 벽에 0칠을 하는 환자는 원수다. 의사는 정신병동에 가두라고 조언한다. 이를 어찌할꼬? '그대 어이かり'는 일찌감치 제 50회 남부 영화 예술 아카데미 영화제 6관왕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51관왕이 되었다. 특히 제42회 파이브 콘티넨츠 국제영화제에서는 단일 영화 최초로 11개 전 부문에서 수상을 했다. 또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촬영상, 사운드 디자인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만큼 '그대 어이かり'는 완

성도가 높다. 배우들의 열연 덕분이다. 남편 동혁은 소리꾼 같다. 국내에서는 22년 4월에 열린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였다. 이제 3월 8일 개봉한다. 오랜만에 피해갈 수 없는 우리들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안락사, 존엄사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하게 될 것 같다. 남편은 아내를 정갈하게 고운 한복으로 차려 입히고 휠체어를 밀며 마지막 여행을 한다. 들꽃들이 다투어 핀 어느 호숫가, 아내는 후련했을 것이다. 속이 탁 트이는 너른 호수, 시원한 바람. 기억을 못해도 느꼈을 것이다. 혹시, 이런 곳이 라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까? 휠체어를 탄 채로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찌나 싫어 조마조마 하다. 물이 깊지 않기를 바랐다. 낭떠러지가 아니어서 안심이다. 진도 씻김굿의 길 닻을 대목을 부르면서 '민살풀이춤'을 추는 남편은 애절하기만 하다. 아니 간절했을까? 살기라고는 느끼지 못했다. 우리가 많이도 들어서 아는, 한을 느끼게 하는 우리 소리다. "간다간다 나는 간다. 북망산천 나는 간다~"는 구슬픈 곡 소리에 묻히는 장면 하나. 맛있게 먹으라고 아내에게 건네준 찹쌀떡. 기도하듯이 온



조기조 박사

힘으로 진혼곡을 부르는 남편은 못 들었을 것이다. 찹쌀떡이 목에 걸려 썩어거리다가 부들부들 떨어 이내 조용해 진 시간은 30초나 될까? 빌어먹을 인생이 이젠 아니잖아. 뜨거운 눈물은 왜 쏟아지는 거야. 안락사를 바라던 아내는 고마워했을까? 찹쌀떡으로 '미필적 고의'의 살인을 했다고 말할 사람 누군가요? 이게 남의 일인가요?

**조기조(曹基祚 Ki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로 봉사하고 있다. (비산군) kjcho@uok.ac.kr (82) 10-9080-2449

## 인니, 신수도 투자 기업에 법인세 면제...거주자도 소득세 면제

### "기업들, 차기 정부서도 사업 지속될지 우려해 투자 주저"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가 칼리만탄섬에 조성하는 신수도 투자 기업에 대규모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 누산타라에 100억 루피아(약 8억6천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10~30년 동안 최대 100% 법인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누산타라로 본사를 이전하는 외국

기업과 금융 구역에 설립하는 금융 회사에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각종 연구개발(R&D) 비용도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자본재 수입세도 면제된다. 누산타라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최대 30년간 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일정 기간까지는 부동산 양도세와 취득세, 각종 등기에 필요한 인지 비용 등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은 올해부터 당장 적용되며 조기에 투자할수록 면제 기간도 길어진다. 이처럼 대규모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신수도 건설에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데다 시간도 많지 않아서다. 임기가 내년 11월로 끝나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임기 내 본인의 공약이었던 수도 이전 사업의 성과를 내려고 서두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누산타라를 새로운 수도로 공식 선언하고 내년 8월 독립기념일에 맞춰 대통령궁과 집무실, 시청, 주요 행정부처 등을 이전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사 진행률은 8%에 불과하다. 투자 확보도 난항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 건설에 필요한 340억 달러(약 44조9천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20%만 정부 재원으로 감당하고 나머지 80%는 민간 투자를 통해 마련한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 건설 현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대 및 DB 금지]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중국, 미국 등 외국 기업들로부터 100건 이상의 투자 의향서가 들어왔다고 밝혔지만, 투자를 확정된 기업은 많지 않다. [연합뉴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 K-사이비 ‘신천지’ 를 경험한 인도네시아인들

## 신천지 사람들이 성경공부 교실 참석을 중용하며 접근

\*이 내용은 인도네시아인들이 보고 경험한 한국 사이비 종교 ‘신천지’에 대해 6일자 자카르타포스트가 게재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에덴 공동체’(Komunitas Eden)라는 집단이 있었던 만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강조하는 기독교 계통 유사 종교집단에 대해 인도네시아인들이 전혀 무지한 편은 아니다. 에덴공동체의 경우 그 집단의 수장 리아 아미누딘(Lia Aminuddin)을 인도네시아 울라마 대위원회(MUI)가 신성모독과 이슬람의 가르침을 왜곡한 혐의로 고발하는 것으로 오랜 갈등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더 많은 사교집단들이 인도네시아에 흘러 들어와 인도네시아인들의 마음을 파고들려 하고 있다.

**가족의 해체**  
중부팔랑카라야 빨랑까라야(Palangkaraya)에 사는 33세의 교사 제이(Jay)는 가족 일부가 한국에서 사이비 종교로 낙인 찍힌 신천지에 가입한 후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모든 것은 2019년 성탄절에 발리에 사는 고모가 제이의 가족들을 온라인 성경 공부에 초대하면서 시작됐다.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제이로서는 고모가 초청한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를 거절할 이유가 없어 아무 의심 없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세 개의 온라인 클래스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거기 참여한 이른바 ‘멘토’ 몇 명은 한국인이었다. 하지만 그 성경공부 모임은 아무래도 정상이지 않았고 제이의 가족은 불과 몇 개월만에 악몽 같은 경험을 겪어야 했다.

성경공부 모임은 주로 요한계시록에 집중했다. 멘토들은 요한, 베드로, 부산 야고보, 안드레, 타데우스, 빌립, 시몬, 바돌로메, 마태, 마티아스, 서울 야고보, 도마 등 신천지

12지파에 속한 14만4,000명 만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됨을 요한계시록이 가르치고 있다며 제이의 가족들을 세뇌했다.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7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신천지에 유리하게 해석한 것인데 여호와와 증인이나 예수그리스도말일성도교회 등에서 비슷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공동체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제이는 구글 검색을 하다가 자신이 사이비 종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이름이 ‘요한 지파’ 일원으로 올라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는 즉시 성경공부 모임을 탈퇴했지만 이미 철저히 세뇌 당한 그의 어머니와 누이는 신천지에 남겠다고 고집했다.

제이는 그들과 심한 말다툼까지 벌였는데 어머니와 누이는 새로운 메시아 이만희 교주를 따르지 않는 제이를 ‘사특한 자’라 부르다가 2021년 7월 결국 연락을 끊고 말았다.

**모순적인 가르침**  
파푸아의 자야뿌라에서 태어나 현재는 족자에 살고 있는 마리오 앤드류 후와에(Mario Andrew Huwae)도 2021년 4월경 성경공부 모임에 초청받았다.

그는 2022년 6월 24일까지 그들과 교류했는데 제이의 경우와 같이 마리오 역시 처음엔 그 모임의 진짜 성격을 전혀 알지 못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그는 긍정적인 기독교 공동체가 그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믿으며 열성을 다했다.

그 역시 제이처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참가하는 13명의 회원들과 매주 온라인 만남을 가졌다. 그들 중 누군가 성경공부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그들은 즉시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로 만들었고 누구든 한 번이라도 클래스에 빠지면 반드

시 보충수업을 들어야 했다. 마리오네 이 모든 것이 더 나은 의로움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 여겼다. 그들의 모임은 수상한 구석이 전혀 없었고 그 그룹을 이끄는 리더의 설교는 이치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 리더는 종종 비유와 조립식 논리를 사용했고 특정 성경구절을 인용해 거기에 다양한 설명을 덧붙이는 열정적인 인물이라고 마리오네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말하는 비유가 성경 구절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마치 해당 성경 구절과 비유가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끝까지 강조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다. 그들이 기도모임을 할 때 회원들과 함께 사 진찍는 것을 강하게 금지하는 규정도 마리오에게 일말의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으로 귀결되었고 그들은 점점 더 말이 안되는 비유를 인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만희 교주가 두 번째 재림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대목에서 그들이 성서와 완전히 모순되는 내용을 가르치는 사교집단이란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

마리오는 그 성경공부 모임을 그만 두기로 결심했지만 그를 초대했던 친구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았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집단이 정통 기독교단일 리 없었다. 하지만 완전히 세뇌된 사람들은 빠져나갈 길도, 방법도, 그럴 이유도 찾지 못했다.

**더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을 노리는 신천지**  
최근 호주 같은 인접 국가에서도 신천지가 발호하고 있는데 그들은 인도네시아인들을 포함한 외국 학생들까지 그 타겟으로 삼고 있다. 신천지 포교자들을 대학 캠퍼스에서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들은 쉬운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



▲신천지가 지난해 11월 대구 스타디움에서 10만명 수료식을 진행했다. (사진 = 신천지측 홍보물 캡처/노컷뉴스)

지를 외국 학생들에게 내밀며 답변을 요구한다.

‘당신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는가?’, ‘외국인 학생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커뮤니티 활동이 있는가?’ 같은 질문들이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질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은 수라바야에서 사업을 하는 28세의 에도 세바스찬(Edo Sebastian)도 한때 그들의 타겟이 된 적이 있다.

멜번에서 석사학위 공부를 하던 2018년, 친구들이 그를 한 성경공부 모임에 초청했다. 그들은 시내 카페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대부분의 멤버들이 매우 따뜻하고 친절해 에도는 환영받는다는 행복감을 느껴 늘 다음 ‘성경공부 모임’을 고대했다.

물론 에도가 멜번에서 외톨이로 지냈던 것은 아니다. 그를 물심양면 지원하는 교회공동체에 속해 있었고 다른 인도네시아인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 등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가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한 것은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다.

당시 그들이 주로 다루던 주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가 여러 비유를 들어 천국을 설명하던 장면이었다. 당시 에도는 이 모임의 목적이 참석자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것임에 한 점 의혹도 없었다. 그러다가 그는 어느날 모임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느꼈다. 그 모

임에 참석하던 한 인도네시아 여성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가족, 친지들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어떤 대화나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게 된 것이다. 꺼림칙했던 에도도 두 달 만에 그 모임에서 탈퇴했다. 그러자 성경모임 멘토 중 한 명이었던 한 여성이 그의 교회에 찾아와 왜 모임을 그만두려 하냐고 이유를 따져 물었다.

에도가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으나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여성은 에도가 성경공부 모임에 돌아올 때까지 앞으로도 매주 그의 교회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했다. 에도는 5년 전의 그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소름이 돋는다.

56세의 청년선교 전문목사 유삭 칸자나(Jussac Kantjana)는 자기도 모르게 사이비 종교에 가입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와 같은 개방적인 공동체에 참여해 수시로 목사와 소통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종교단체가 지나치게 배타적이라면 빨간색 지뢰표시 깃발을 꽂아 놓고 기피할 것을 주문했다.

가족들과 긴밀히 대화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예방책이다. 사교집단에 쉽게 휩쓸리는 이들은 대개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유삭 목사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가 매우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한인기업과 3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차세대 리딩기업으로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 할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www.bosung.co.id






**종이 골판지 생산 / 카톤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CORRUGATED SHEET /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 INNER BOX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 Pasar Kemis Tangerang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 (hunting)  
Fax : (021) 5935-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 삼성물산 패션부문, 2조 시대 열었다

LF 1조9685억...2개社 영업이익 1800억 넘겨  
패션 3사 작년 매출 10~20% 급성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2조 시대 열었다  
패션3사 작년 매출 10~20% 급성장



패션업계 대기업들이 리오프닝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이 업계 최초 매출 2조를 돌파했고 LF는 1조9685억원을 기록하며 2조에 근접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는 지난해 1조2286억의 매출을 올렸다. 2014년 1조2490억 이후 최대치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지난해 매출은 2조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2% 상승했다. 영업이익은 1800억원으로 80% 급증한 수치다. 온라인·수입·자체 브랜드가 고루 판매 호조를 보였다. 특히 아미, 메

종키즈네, 톰브라운, 르메르 등 신명품 매출이 크게 늘었다. 2023년은 온라인 서비스 차별화, 상품 경쟁력 강화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측은 “편입샵은 유망한 신규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해서 볼륨을 확대하고 온라인은 MZ 타겟 신규 브랜드를 발굴하는 등 차별화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잇세컨즈 등 자체 브랜드의 상품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LF는 지난해 매출액 1조9685

억원, 영업이익 1852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대비 9.8%, 16.6% 늘어난 수치다.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패션·식품부문 매출 증가와 부동산 금융·식품 자회사 실적 개선에 따른 이익 증가가 꼽혔다. LF 측은 “올해도 메가 브랜드 중심 경영을 통한 팬덤 구축과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합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기업 가치 제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오롱FnC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2286억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644억원으로 67% 늘었다. 아웃도어브랜드 ‘코오롱스포츠’와 ‘지포어’, ‘왁’ 등의 골프웨어가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코오롱FnC 측은 “비우호적 대외환경이지만 안정적인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신규 브랜드 런칭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포어, 왁 두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 바이스골프, 힙한 무드의 골프웨어로 승부수

연내 10여개 유통 진출...아이코닉한 볼 시그니처

큐앤드비인터내셔널(대표 박민규)이 올해 S/S 런칭한 ‘바이스골프(VICE GOLF)’가 트렌디하고 힙한 무드의 골프웨어로 또 한 번 시장 재편에 나선다. 독일 뮌헨에 헤드쿼터가 있는 바이스골프는 잉고뒤엘만, 라이너스테클 두 명의 디렉터가 지난 2012년 런칭했다. 브랜드의 심볼인 아이코닉한 볼을 중심으로 모자, 캐디백, 가방 등 용품 위주 전개를 해왔다. 골프웨어의 시장성이 큰 한국을 필두로 어퍼얼 라인 전개 첫 시작을 알린 바이스골프는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현대의 트렌드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스트릿 캐주얼 무드의 골프 브랜드를 표방한다. 스포티함을 추구하는 두잉 위주의 퍼포먼스 라인에 트렌디한 캐주얼 라인으로 선보이며 직수입 어퍼얼도 함께 선보인다. 현재 유럽에서 시작해 미국, 한국까지 시장 확대에 속력을 내고 있다. 바이스골프의 강점은 기능성만 내세운 브랜드가 아닌, 디자인성을 내세워 필드에서 스타일까지 챙기고 싶어 하는 골퍼들을 겨냥한다. 최근 몇 년간 골프 대중화 붐으로 신규 유입이 많아진 만큼 브랜드의 DNA를 강력하게 보여준다. 테크니컬한 기술을 접목한 페인팅 드림볼은 바이스골프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이템이다. 바이스골프 메인 로고는 핸드드루잉 형태



▲바이스골프는 스포츠를 넘어서 골프를 하나의 놀이문화로도 즐기는 자유분방한 마인드를 가진 MZ세대부터 비즈니스가 일상화 돼 있는 X세대까지가 메인 타겟층이다.

로 골프 스윙 모션과 볼을 쳤을 때 날라가는 움직임을 형상화해 만들어졌다. 곡선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민첩한 무브먼트와 긍정적인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다. 슬로건 역시 “당신의 악습관도 다 받아들이라(EMBRACE YOUR VICE)”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바이스골프 관계자는 “가격대가 증가 포지셔닝으로 고객 문턱을 낮춘 만큼 대중적인 골프웨어 브랜드로 볼륨화와 시장 입지를 빠르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문의**

박 찬 Hp : 0812 9512 8990  
현지인 Hp : 0857 7752 7542  
Hp : 0812 9012 2019

**★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0 No. 90,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pusat\_BGT@yahoo.com



**몽클레르, 아트 오브 지니어스**  
 몽클레르는 실시간 몰입형 이벤트인 아트 오브 지니어스(The Art of Genius)를 통해 몽클레르 지니어스의 새로운 비전을 공개했다. 몽클레르는 협업이라는 형태를 한 발 더 나아가 공동 창조를 가능케하는 플랫폼으로 변화시키며, 예술,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음악, 스포츠 그리고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각 분야가 나아갈 수 있는 한계에 도전한다.



**카린, 뉴아이콘 뉴진스 발탁**

모던 컨템포러리 아이웨어 브랜드 카린이 브랜드의 새로운 얼굴로 뉴진스를 발탁하고 동시에 S/S 시즌 영상과 화보를 선보였다. 공개된 화보 속 뉴진스는 다양한 디자인의 선글라스를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소화하며 독보적인 비주얼로 감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까르띠에가 엑소 백현과 함께 더욱 모던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진화한 까르띠에에 탱크 프랑세즈 위치를 선보였다. 클래식한 분위기와 남성미를 유감없이 발산한 까르띠에에는 1996년 처음 출시된 프렌치 시크 스타일을 대표하는 새로운 탱크 프랑세즈 위치를 미학적으로는 물론 인체공학적으로도 새로운 접근 방식을 더해진 진화한 모습을 자랑한다.



영 컨템포러리 여성복 브랜드 '온앤온' 이 뮤즈 문가영과 함께한 'PLAY WITH ME' 화보를 공개했다. 화보 속 문가영은 온앤온의 2023 봄 신상 아이템들로 따라 입고 싶은 트렌디한 스타일링과 함께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해 눈길을 끌었다.

**'한없이 양말에 가까운 신발'**  
**보테가베네타에 이목집중**



▲보테가 베네타가 FW 패션쇼에서 양말 같은 신발을 선보였다. 사진=보테가 베네타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의 새로운 신발이 이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2023 FW 패션쇼에서 선보인 양말 형태의 부츠가 패션계의 주목을 받았다. 발렌시아가가 유행시켰던 '삭스스니커즈'를 넘어서 한없이 양말과 흡사한 디자인을 가족으로 구현한 것이다. 디자이너 메튜 블라지는 이 신발을 '슬리퍼 양말'이라 부르며 "울이 아닌 가족으로 만든 가족 니트 신발"이라고 설명했다. 제품가는 수천 달러를 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그 코리아'는 이번 보테가 베네타 쇼를 최고의 2023 FW 패션쇼 7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p><b>NEXTIN</b> LED LIGHTING</p> <p><b>ELECTRIC MATERIAL</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nufacturing Assy Cikarang</li> <li>Trading / Import Korea &amp; China</li> <li>Small Qty Can Be Accepted</li> </ul>	<p><b>Jakarta Office</b>                  Plaza Kenari Mas Lt.4                  Jl Kramat Raya No.101, RW. 01                  Paseban, Senen, Jakarta Pusat                  Telp : +6221-3104414</p> <p><b>Cikarang Warehouse</b>                  Jl Industri Utara 4 Blok SS6b                  Kaw, Industri Jababeka Cikarang,                  Ds Mekar Mukti, Cikarang Utara</p> <p><b>Contact Person</b>                  0815-1902-4272</p>	 <p><b>MRO GLODOK</b></p> <p><b>SAFETY/PACKING/SPARE PARTS/ TOOLS/SAFETY/EQUIPMEN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elivery Onsite From Glodok</li> <li>Alternative / optional brand or technical conditions</li> </ul>
<p><b>LED Highbay 100W/150W</b></p>		<p><b>PACKING ITEMS :</b> Silicagel, Wrapping, PE Bag, Opp Tape, Strapping Band</p>
 <p>Price 150W Rp 1.400.000                  Waterproof Class IP 65                  Power factor : 0,95                  CCT : 6500k</p>		
<p><b>LED TUBE T8 18W / 24W</b></p>		<p><b>STEEL ITEMS :</b> Alumunium profile, Belt, Reparation Parts</p>
 <p>Price 18W Rp 60.000                  Lumen : 2100 Lm                  CCT : 6500K                  Input Power : 1 Sisi / 2 Sisi</p>		
<p><b>LED STREETLIGHT - FLOODLIGHT - DOWNLIGHT - FLATLIGHT</b></p>		<p><b>TOLLS &amp; CONCUMABLE ITEMS :</b> Hand Tools, WD 40</p>
 <p><b>ELECTRIC ITEMS</b></p>	 <p><b>SAFETY/HSE ITEMS</b></p>	
		
	<p><b>FACTORY EQUIPMENT AND SPARE PARTS</b></p>	
		



## 블랙야크, 아이유와 함께 한 봄 아웃도어룩

### 방수 방풍 기능 뛰어난 'AWC자켓'

▲블랙야크가 전속모델 아이유와 함께 방수 방풍 기능이 뛰어난 봄 아웃도어룩으로 제격인 'AWC자켓' 시리즈를 선보였다.

블랙야크(회장 강태선)가 전속모델 아이유와 함께 한 아웃도어룩을 공개하고 혁신 기술력을 적용한 'AWC자켓'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번 화보는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블랙야크의 고기능성 제품이 돋보일 수 있도록 차별한 분위기

속에서 꾸밈없는 스타일링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화보 속에서 아이유는 헝클어지고 젖은 머릿결로 비, 바람 등 자연 그대로를 느끼는 진중한 모습이 돋보인다. 잦은 날씨 변화에 자연으로 뛰어 들 수 있는 봄 아웃도어룩의 정수를 보여준다.

아이유가 입은 옷은 블랙야크의 기술력 공유 캠페인 제품인 'AWC 자켓' 시리즈다. 3레이

어(겉감+필름+안감) 방수 원단을 비롯해 후드, 어깨 등 비가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에 봉제선 전체를 방수 테이프로 접착하는 심실링 공법을 적용해 방수, 방풍 기능을 높였다.

화보 속에서 아이유는 '비를 맞으세요, 바람을 느껴세요' 라는

캠페인 메시지처럼 핑크색의 '선라이트AWC자켓', 긴 기장의 '브리즈AWC자켓', 짧은 기장의 오버핏 제품인 '윈드AWC자켓'을 중심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스타일링을 연출했다. 블랙야크 관계자는 "AWC 자켓은 자연의 변화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비를 더 맞고, 바람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혁신적인 기술력을 적용해 만들어진 제품으로 아이유는 그 어느때보다도 진중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촬영에 임해주며 완성도 높은 화보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 리바이스,

### 글로벌 엠버서더로 뉴진스 발탁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헤인 'Gen-Z' 에 인기



리바이스가 501 청바지 탄생 150주년 기념해 뉴진스(NewJeans)를 리바이스 글로벌 엠버서더로 선정해 화제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헤인 구성의 그룹 뉴진스는 2000년대 미래 지향적 콘셉트로 Gen-Z의 마음을 이끌어내며, 지난해 7월 데뷔 'Attention', 'Hype boy' 로 신드롬급 인기를 끌고 있다는 평.

뉴진스는 혁신적 스타일로 전

세계 팬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다. 뉴진스는 현재 Gen-Z의 대표 아이돌이며, K-Pop이 세계적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뉴진스(NewJeans)의 그룹명은 언제 입어도 멋스럽고 시대 불문 모두에게 사랑받아온 진(Jean)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 유행을 타지 않고 타임리스(Timeless)를 추구하는 리바이스 정신과 닮아있다.

리바이스 관계자는 "501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면서 젠지(GenZ)세대들에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어필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으로 뉴진스와의 만남을 준비, 자유롭고 합한 감성과 밝은 에너지를 지니는 만큼 브랜드 엠버서더로 다양한 퍼포먼스와 흥미로운 작업들을 함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SINCE 1969

#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용 보일러

##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증기 / 석탄

**노통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1T/H~15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증유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증유

- 석유, 봉재, 신발, 기타 산업용 보일러
- 보일러 Maintenance(세관작업, 보수관리, 청관제)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Tel : 021.5980.222 / 5982.666

한상윤 Hp : 0822 9999 1447 Fax : 021.5984.666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938 006  
Jl. Setrekan-Pentol, Troso RT 007 / RW 010,  
Kec. Pecangaan Kab. Jepara, Jawa Tengah, 59462.

## 톱슨 목금형 (톱슨발형)

##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 아크릴, 합판, 빼그라이트 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 아스테이지, PC, 필름 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 PT.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korea.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 힐라 언더웨어, 스타일리시 스포츠 언더웨어라인 런칭



징이다. 우리 몸 가장 가까이에 닿는 언더웨어의 특성을 고려해 소재 선택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속옷 원단에 페페트병을 재활용한 대표적인 지속가능



원사인 '에코론', 대나무를 활용한 식물성 지속가능소재인 '뱀부셀' 등을 일부 혼용해 쾌적한 착용감과 패션의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했다. 컬렉션 대표 제품인 '힐라벨로 브라탑'은 아웃밴드를 사용한 러닝형 스포츠 브라탑이다. 가슴 부분 몰드가 부착돼

활동 시 안정적인 모양과 착용감을 제공한다.

반 타공 스펀지 몰드에 안쪽 메시 원단, 흡한속건 기능을 지닌 에코론 원단을 혼용해 착용 시 통기성과 쾌적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입고 벗기 편한 U라인 스타일로 신학기 학생들은 물론 전 연령대가 착용하기 좋은 기본형 브라탑이다.

힐라벨로 몰드형 브라탑은 힐라벨로 브라탑과 동일한 소재, 몰드에 넓은 밴드형 어깨 끈과 날개 U라인을 적용해 활발한 움직임에도 압박감 없이 편안한 착용감에 안정적인 피팅감까지 제공한다.

후면 후크 아이를 부착해 입고 벗기 편리하도록 설계됐으며, 역시 브라 부분 하단 세리프 로고 밴드와 어깨 끈 안쪽에도 동일한 디테일의 밴드

디자인을 삽입해 스포티한 무드를 한층 배가했다.

두 가지 타입의 스포츠 밴딩 브라탑과 세트 착용 가능한 여성용 힐라벨로 핸드드롭스와 함께 남성용 힐라벨로 드롭스도 준비돼 있어 커플 언더웨어로도 제격이다.

힐라 언더웨어 관계자는 "일상에서는 물론 액티브한 스포츠나 아웃도어 활동 시에도 쾌적함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성에 스타일리시함까지 더한 특별한 언더웨어를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또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 이번 컬렉션이 올봄, 오운완 트렌드 속 일상을 아우르는 스포츠 패션을 선호하는 MZ 세대에게 새로운 제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힐라 언더웨어(FILA UNDERWEAR)가 스타일리시 스포츠 언더웨어 라인 '힐라벨로(FILABELLO) 컬렉션'을 출시했다.

속옷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것은 기본, 모브랜드인 힐라의 프리미엄 스포츠 헤리티지에서 영감을 얻어 스포티하

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의 스포츠 밴딩 브라탑을 메인으로 남, 여 드롭스를 더해 컬렉션을 완성했다.

힐라벨로 컬렉션에는 전 제품에 전반 힐라의 이탈리아 헤리티지 감성이 돋보이는 세리프(serif) 로고 밴드를 디자인 포인트로 활용한 것이 특

한국 점유율 1위!

#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 일반 인버터 타입 대비 **4%** 더 에너지 절약가능한 타입
2. FYH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유성열 : 0812 8037 0303 | 한상윤 : 0822 9999 1447 | Mariono : 0812 8763 965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JEPARA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